

“역사 왜곡 강력 대응”

황숙주 순창군수, “‘드라마 녹두꽃’ 전봉준 밀고자 김경천의 고향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요구 등 조치

황숙주 순창군수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을 밀고한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영한 한 방송사의 드라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방송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방영한 드라마 ‘녹두꽃’ 제44회 분에서 전봉준 장군의 밀고자 김경천의 고향이 순창이라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본래 김경천의 고향은 정읍시 덕천면으로 정읍군지는 물론

갑오동학혁명사,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 등 검증된 연구저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군은 역사사실이 왜곡된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곧바로 방송사측에 사실 관계를 알리면서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하지만 방송사 측은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김경천의 고향을 삭제하는 소극적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정 방송을 이끌어 내려 노력했으나 여의

치 않자 황군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 평소 순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황 군수의 의지가 그대로 묻어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전봉준 장군을 밀고한 김경천의 고향은 명백히 순창이 아니다”면서 “사실이 왜곡된 드라마를 방영하고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방송사측에 사과를 촉구하며 앞으로 도 전봉준장군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역사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진실을 알려나가는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훼손된 군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서는 12일 접수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장류축제, ‘두 달 앞으로’

새 콘텐츠 준비 중... 22일까지 체험부스 모집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국, 위원회)가 이번 순창장류축제에 새로운 콘텐츠로 중무장해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 계획이다.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14회째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민속마을 부무대 일원에서 열린 장류주막밥 모자

크 프로그램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기’로 새롭게 대체할 계획이다.

순창장류축제의 핵심인 ‘장(醬)’을 부각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 400여명이 함께 고추장을 만들고, 체험을 통해 만든 고추장은 숙성시켜 다음해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올해 체험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내년

에 또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400여명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체험형 콘텐츠로 관광객들에게 순창하면 장류라는 이미지 각인과 타임캡슐 방법을 적용해 신선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10~20대 청소년과 청년층들이 관심을 끌만한 ‘지상최고의 떡볶이 오픈파티’도 준비한다.

군은 축제와 관련해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와 각종 체험,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옷칠공예관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선정

문체부·관광공사 470여개 산업관광 시설 중 20곳에 포함

박남원시 옷칠공예관이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곳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 산업, 기업 등 국내 산업유산의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0곳의 산업관광지는 2016년부터

터 현재까지 구축한 한국 ‘산업관광’ 자원 조사로 수집한 470여개의 국내 산업관광 시설 중에 운영프로그램의 매력도, 산업관광지 인지도, 주변관광 자원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 학생, 가족단위 관광객 등이 관광하기 적합한 곳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남원시 옷칠공예관’은 2004

년 개관하여 전국옷칠공예대전때 수상작품을 비롯한 옷칠공예품 전시, 옷칠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옷칠공예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박강용 옷칠공예관 관장(도 무형문화재 옷칠장)은 올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공모사업에 지역명사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개방형 프로그램 공모 선정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의 혁신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최한 ‘2019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방형 프로그램개발 부문’에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된 청

소년수련원은 명실공히 독창적 창의 혁신기관으로 우뚝 서며, 임실군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은 2018년 우수 인증프로그램부문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개방형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 명실공히 독창적 창의 혁신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조용식 청장은 13일 임실경찰서를 방문 전북치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정성·정의·정감·정진 4대 실천 당부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임실경찰서 방문 치안 의견 수렴

전북지방경찰청 조용식 청장은 13일 정성·정의·정감·정진 4대 실천가치의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치안활동의 토대 마련을 위해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군민들과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전북치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날 임실서를 초도 방문한 조 청장은 협력 단체장들과의 접견을 통해 평소 협력치안에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평온한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청장은 이어 주민들과 협력단체장, 청소년센터, 장애인협회,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자리

서 아동 안전을 위해 헌신한 아동지킴이 감미정에게 경찰청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기여 유공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김보순,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유공 녹색어머니회 최일순, 의무경찰 체육활동 증진 유공 의경 어머니회 진민선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기여한 생활안전과 배정호 경위 등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112타격대원 조진곤 상경 등 2명에게는 포상휴가가 주어졌다. 설명회를 마친 조용식 청장은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초청 주민과 협력단체, 유공시민들과 중식을 마치고 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동행’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업무협약 체결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육성 발굴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남원시가 국내 최고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화된 작목발굴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전문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전국제일의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원시는 13일 이현주 시장과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강재구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 정보의 교류를 통해 남원시 지역특화품목 육성

활성화를 꾀하고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복원 뿐만 아니라 식물유전자원(종자등) 증식, 배양을 통한 연구와 보전, 이를 활용한 가치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기관인 만큼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품목 발굴 육성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으로 특화된 품목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청소년어울림마당 물놀이 축제

남원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아동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축제를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회 남원시청소년어울림마당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 축제는 더위탈출 대작전! 이렇게 좋을(수)가 리는!! 주제로 동여리 축하공연, 미끌미끌 워터슬라미, 깜짝시원 물대포, 흥미진진 서바이벌 물총마당, 재미있는 물놀이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물놀이 풀장은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17일~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대형 수영장 3개, 소형 수영장 2개, 워터슬라임 2개와 탈의실, 휴게시설까지 구비했다.

축하공연은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동아리, 밴드동아리, 외부지원팀 등 총 15개팀이 댄스공연, 밴드공연, 통기타연주, 풍물, 판소리 합창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된다.

체험부스는 드론날리기, 즉석사진, 봉숭아물들이기, 페이스페인팅, 역사동아리, 앙동게임, 모자만들기, 원데이 타투, 열쇠고리, 수박화채, 팔링수, 미숫가루 등 풍성한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위촉

순창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으로 활동할 12명에 대한 위촉식과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관내 섬진강과 소하천 등을 중심으로 유어인구 증가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 및 섬진강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번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감시단은 섬진강 일원을 비롯한 지역 댐과 호, 하천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나 미신고 불법어로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동력보트, 투망, 집수용 장비를 이용한 어업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 제거는 물론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수 소장은 “앞으로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섬진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내수면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